

# 선거사무소 개소식·성명 대결 ... 광주·전남 '텃밭' 쟁탈전

### 후보 등록 후 첫 주말 교회·유원지 돌며 '구에 경쟁'

### "호남패권" "계파패권" 더민주-국민의당 신경전 가열

광주·전남지역 여야 각 정당의 후보들이 4·13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으로 호남 텃밭 쟁탈전을 시작했다. 각 후보들이 일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등 후보들의 '불꽃 경쟁'도 시작했다.

공식 선거전은 오는 31일 0시부터 펼쳐지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후보들의 '구에 경쟁'은 후보등록 후 첫 주말과 휴일인 26일과 27일, 광주·전남 18개 지역구마다 예외 없이 펼쳐졌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발전'을 이룰 '책임자' 등을 자처하며 인파가 많이 몰리는 교회나 성당, 전통시장, 유원지에서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돌리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고 필승 다짐 = 각 정당 후보들은 주말과 휴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주말인 26일에는 광주에서 새누리당 김연옥(서구), 더민주 송갑석(서구)·이형석(북구)·이윤빈(광산) 후보 등이 개소식을 열고, 전남에서는 국민의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 더민주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조상기(목포)·서삼석(영암·무안·신안)·송대수(여수) 후보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27일에는 더민주 정준호(북구)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뒤늦게 선거

전에 뛰어 들었다.

정 후보에 대한 중앙당 전략공천에 반발해온 북구갑 지방의원들은 이날 "중앙당의 터무니없는 전략공천이 이해되지 않지만 당원으로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면서 정 후보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최경환(북구) 후보는 26일 예비후보 당시 사용했던 용봉동 선거사무실을 양산동으로 이전하고, 공식적인 첫 일정으로 시·구의원 및 지역 고문들과 함께 총선 필승 전략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더민주 vs 국민의당 신경전 가열 = 더민주 광주시당은 27일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호남 28개 선거구 전체 의석 석권 발언과 관련, 논평을 내고 "천 대표와 국민의당은 망언을 삼가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국민의당의 속내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2의 자민련'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당장은 호남지역 패권정당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명한 호남사람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더민주 김종인 대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1980년 국보위 행적으로 광주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햇볕정책 훼손

발언으로 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마저 부인한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의 훈장을 달고 광주에 왔다"면서 "더민주의 시민을 현혹하는 위장술로 광주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공천 결과를 보면 계파 패권이 공고화됐다"며 날 선 발언을 했다.

영암·무안·신안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로부터 당 비대위를 인수 받아 '혁신을 한다'는 명분을 삼았지만, 결국 혁신은 없었고, 완전히 문재인 당으로 화장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길 분장사가 되어 전남과 광주를 찾은 김 대표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에 경쟁' 치열 = 광주·전남 각 후보들은 주말과 휴일을 맞아 종교시설과 산행에 나서는 산악회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구에 경쟁에도 나섰다.

더민주 이형석(광주 북구) 후보는 휴일인 27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함께 북구 광주패밀리랜드를 찾아 시민들을 상대로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양항자(광주 서구) 후보도 이날 산악회원들의 정기 산행 방문인사를 시작으로 선거구 내 교회와 성당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부인 김미경씨와 함께 26일 오후 서울 노원구 광복빌딩에서 열린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후 부산 영도구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여야 선거전략·의석 목표수

여야 모두 20대 총선 체제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문제를 최대 이슈로 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양당 정치 기득권'의 폐해를 심판해 달라고 나섰다.

◇새누리당 = 경제활성화 및 임박 등을 예를 먹이며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려는 '민생 우선세력'과 경제를 포기한 '민생 외면세력' 간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오는 28일 공식 발족하는 선대위는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 서정원·이인제 최고위원, 강봉준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5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갖추기로 했다. 공약도 '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 일자리 개혁 ▲ 청년 독립 ▲ 40~50대 재

교육 ▲ 마더센터 ▲ 갑·을 개혁 등 핵심 5가지만 추렸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를 과반 의석 확보로 잡았다. 현재 재석 292명 중 146명으로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수를 '150+α'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단독 선대위원장장으로 해서 박근혜정부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또 서민경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의제를 발굴할 핵심 조직으로 가정 '경제상황실'을 설치, 비례대표 4번인 최윤영 서장대 전 부총장이 지휘한다.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김 대표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을 '잃어버린 경제 8년'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파고들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선 안 된

## 야당 심판론 vs 경제 심판론 vs 국민 속으로

새누리, 일자리개혁 등 공약 '150+α'의석 확보에 주력

다는 논리를 폈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은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배신의 경제'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민 경제 살리기' 및 경제 민주화 공약을 띄웠다. 더민주도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공공임대 5만호,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이익공유제 확대 등 이른바 '더불어성장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도 현행 '107석 사수'를 마지노선으로 탈당 사태 이전 의석수(128석)보다 많은 130석을 최대 목표로 잡았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등 공약 107석 마지노선, 130석 목표

◇국민의당 =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하려는 국민의당은 총선 핵심 슬로건을 '국민 속으로'로 정하고 양당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 국민의 편에 서는 제3정당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발목 잡기를, 더민주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 심판을 타격을 한 것과 차별화해 "문제는 정치야"란 구호를 내세워 기존 정치 전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선의 핵심 기조도 새누리당

국민의당, 제3당 경쟁체제 변혁 호남서 20석 전국서 40석 이상

과 더민주의 '담합 체제'를 '3당 경쟁 체제'로 바꾸는 정치체제 변혁을 제시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를 앞세워 '새로운 정치'로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안철수·천정배·김영환·이상돈 등 4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에 비례대표 1·2번으로 지명한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초에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대규모 전진대회를 열어 '세물여'에 나선다.

호남에서 20석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7~8석, 정당지지율 20%를 달성해 4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후보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더민주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로 밝혔던 130석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당을 향해 "지역구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단일화 움직임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당과 협의하지 않고 더민주와 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제명을 포함해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신의 광장/즐거움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 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도움을 직접 수이며 정성껏사랑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스cc,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명실코스 15분, 성만여 차장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의 입지, 차량이동시간임
-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 차량이동시간임
- 얼리버드이벤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상수기·준상수기·연휴기간 제외)
- 렌트카 90% 할인: 벨라 15평 동나무원룸 1박 + KS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비수기 주중 기준)
- 단체수요 사설원비: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요가능한 아이브를 완벽, 조·중·석식가능